



김삼열

1

아침일찍 일어난 은실이는 군모의 별을 열성스레 닦고있는 아버지의 목에 무작정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또 출장가시나요?》

《아버지야 언제 집에 붙어있을 새 있나...》

옆에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진 정말... 이번엔 언제 오시나요?》

《시간이 걸릴게다. 작년에 새로 건설한 뽕족봉중계탑에 설치할 중계설비들을 접수해야 한단다.》

섬방어대의 문화기재를 맡아보는 은실이의 아버지는 몹시 바쁩니다. 섬방어대산하대대, 중대들에 손풍금이나 하모니카, 기타와 북 같은 대중악기들과 군악연주에서 약국의 감초처럼 필요한 왕나팔은 물론이고 군인 문화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조명음향설비들과 방송선전차에 이르기까지 방어대 군인들의 문화생활에 필요한것이라면 다 아버지의 손길이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군인문화회관을 물에 있는 큰 도시의 극장들처럼 현대적으로 꾸릴 때에는 아예 현장에 거처를 정하고 일판을 벌리면서 자주 출장길에 오르곤 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오냐, 그동안 공부를 잘해라.》

떠나는 아버지를 바라드린 은실이는 자기가 맡아 기르는 토끼우리에도 향했습니다. 은실이네 집에는 인민군대아저씨들에게 드리려고 은실이가 기르는 토끼가 50여마리나 있습니다.

우리마다 토끼풀을 듬뿍듬뿍 넣어주고는 어머니를 도와 닭과 오리, 계사니의 먹이도 준 은실이는 인차 학교길에 올랐습니다. 학교까지는 거리가 멀기때문에 시간을 맞추려면 이른아침부터 부지런히 걸어야 합니다.

언덕길을 뚫아오르던 은실이는 무츨 서버렸습니다. 물으로 떠난다며 먼저 집을 나선 아버지가 앞집에서 살던 유치원꼬마 충성이네 이사짐을 실어주는것을 보았기때문입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짐을 실는 아버지의 열성은 여간 아니었습니다.

충성이네는 이사온지 5년만에 다시 물으로 나갑니다.

(우린 언제면 이사를 갈까?)

호- 한숨을 짓던 은실이는 입술을 감빨았습니다.

이 섬이 고향인 은실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것은 오래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작년까지만도 이 섬마을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아침해가 뽕족봉어구에서 떠오르면 눈부신 해살은 섬을 어루만지며 서해의 물결위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칙칙하던 골짜기가 해빛을 받아 푸른 숲과 기묘한 바위들을 드러내보이며 기이하고 아름답게 변하고 푸른 물결 출렁이는 서해는 눈이 부시게 반짝거립니다.

그런데 요즘 물으로 이사가는 집이 한두집 보이자 은실이의 부러움은 바람을 기껏 들이키는 고무풍선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제일 친하게 지내던 현희가 이사가서 편지를 보내왔을 때부터였습니다.

충성이네 이사집을 실은 자동차가 물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태우고 부두로 떠날 때까지 서있던 은실이는 누군가 어깨에 손을 얹는 바람에 돌아섰습니다. 부대축산반에 나가시던 어머니였습니다.

《넌 학교간다더니 여기 서있니?》

《충성이네가 이사가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던중이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웬일인지 나지막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도 은실이가 현희의 편지를 받아본 다음부터는 기분이 이전같지 않다는것을 잘 알고있었습니다.

그때 편지를 받고 너무 부러워 잠 못들고 밤새 뒤척이던 딸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어머니였습니다.

《은실아, 이번 방학엔 물에 가서 놀다 오너라. 대판에 있는 아달산 영웅할아버지도 만나고 박사가 된 남포이모도 찾아가보고 실컷 놀다가 오너라. 그리고 현희한테도 들리렴.》

《정말이에요?!... 아니, 됐어요.》

잠시 기쁜 빛이 어렸던 은실이는 다시 고개를 살래살래 저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아직 섬마을을 떠나본적이 없는데다 이런 이야기는 그전에도 여러번 있던것입니다.

어머니는 은실이의 얼굴에서 생각깊은 눈길을 못 떼며 다짐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꼭 물으로 보내마. 약속한다. 자, 가거라. 학교늦겠다.》

《아이, 정말?!》

은실은 그제야 총총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뽕족봉어구에 들어서니 아침해살이 봉우리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노라니 현희 생각이 절로 떠올라 한숨이 호호 흘러나왔습니다.

현희는 은실이와 이 섬에서 함께 태어난 한고향내기입니다. 락아소와 유치원도 함께 다녔고 중학교에도 함께 입학했습니다. 똑같은 최우등생에 은실이는 분단위원장, 현희는 학급반장이었습니다. 언제나 함께 붙어다녀서 쌍둥이라고 불리운 동무였습니다. 인민군대원호사업이나 좋은일하기도 빠지지 않고 앞장서는 좋은 동무이기도 하구요.

작년 여름 은실이 아버지가 텔레비존중계 수아저씨 그리고 수리공아저씨와 함께 저가파로운 뽕족봉에 중계탑을 세울 때였습니다. 그때도 현희는 어머니를 도와 아저씨들

에게 식사를 날라주는 은실이를 따라 자주 봉우리에 올랐습니다.

처음 오를 때는 산비탈이 얼마나 가파로운지 입에서는 겨불내가 나고 할딱숨이 꼭꼭 숨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봉우리정점에 올라 시원한 산정에서 경치를 부감하니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수려한 나무숲은 볼수록 청신했고 비탈을 뒤덮은 잡관목들사이에 활짝 피어난 들국화송이들이 바람에 하느적거렸습니다.

기묘한 바위들은 또 그것들대로 모양이 각이했습니다. 발을 가는 농민, 동이를 머리에 인 녀인, 잠자는 곰과 토끼를 업은 거북기형상을 한 바위도 있었습니다. 바위로 이루어진 봉우리아래에 있는 솔대문은 사슴동산으로 들어오는 입구같았습니다.

감탄사가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막히게 멋있구나.》

은실이가 막 환성을 지르는데 흥분한 현희는 또 저대로 읊조리듯 웨쳐했습니다.

뽕족봉 너 신비한 산아-

정녕 너는 내 고향의 명산

우리 섬의 금강산이여라

현희의 즉흥시를 듣고보니 화보에서 보았던 명산들과 별반 다른것이 없는듯싶었습니다.

《현희야, 정말 신통하구나!》

은실이에게는 나서자란 이곳이 자기의 고향이라는 자부심이 한껏 솟구쳐올랐습니다.

이런 은실이에게 고향에 대한 허전한 생각이 생겨난것은 잊지 못할 자작시를 남긴 현희가 평양으로 이사가 편지를 보내왔을 때부터였습니다.

현희는 첫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은실아, 내가 전학온 학교는 어버이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자랑많은 학교란다! 학이 내렸다는 무학산 기슭에 자리잡은 아름다운 곳이야.》

그후에 날아온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은실아, 우리는 오늘 버스를 타고 만경대고향집을 찾았다. 만경봉에 올라 평양시를 바라보니 얼마나 놀랍던지, 정말 희한했어...》

언제는 제 고향의 뽕족봉을 천하절승 금

강산에 비기던 현희에게서 그런 편지를 받고보니 생각이 많아지는 은실이였습니다. 하긴 아무리 둘러봐야 그저 보이는건 산, 바다, 돌, 나무밖에 더 없습시다.

이름마저 투박하게 불리우는 이 섬을 오곡백과 설레이고 행복의 창조물들이 키돋움하며 솟구쳐오르는 별과 도시에 어찌 비기겠습니까.

2

은실이는 지는 해를 바라보며 마을언덕 공지에서 물에 나간 아버지를 기다리고있습시다. 멀리서 우르릉- 하고 자동차의 발동소리가 들려왔습시다.

은실이는 얼른 소리나는 길쪽을 바라보았습시다. 어느덧 자동차의 모습이 굽인돌이에 나타났습시다. 다가오는 자동차의 적재함을 살펴보던 은실이의 얼굴에 한가닥의 그늘이 비겼습시다.

(또 안 오시누나.)

실망하여 돌아서는데 《은실아.》 하고 찾는 목소리가 들렸습시다. 차에서 뛰어내린 기통수아저씨가 부르는 소리였습시다.

《은실아, 편지가 왔다. 자, 받아라.》

《!》

현희에게서 날아온 편지였습시다. 편지를 받아든 은실은 무등 기뻐습시다. 그는 얼른 봉투를 뜯었습시다.

《은실동무, 회답을 기다릴 새 없어 또 급하게 편지를 쓴다. 은실동무, 기뻐해줘.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글씨 우리 아버지가 참모장으로 사업하는 부대를 찾아주신 것이 아니겠니!...》

편지의 첫 글줄부터 심장이 쿵- 하고 울리는 소식이였습시다. 은실이는 얼른 편지를 가슴에 꼭 댔습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얼마나 그립고 뵈고싶은 원수님이십니까!

현희의 격동된 목소리가 꿈속에서처럼 들려오는듯싶었습시다.

《...부대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마중나온 부대지휘관들과 아버지의 손목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나서 군인들의 군무생활정도 하나하나 알아보시고 아저씨들의 수고도 헤아려주시며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선물로 안겨주시었다누나. 그러시고는 초소를 지켜선 부대아저씨들과 사랑의 기념사진

을 찍어주시었대.

정말 굉장했어. 군대아저씨들과 가족엄마들까지 모두 떨쳐나서 떠나시는 원수님을 따라서며 목청껏 만세를 불렀단다.》

《!...》

은실이는 그제서야 자기가 왜 물으로 가고싶어하는지 차츰 머리에 새겨졌습시다. 그것은 결코 어머니가 약속하는 영웅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도 아니며 박사이모가 보고싶은데 있는것이 아니였습시다. 섬에서 물으로 나간 아저씨들은 모두 현희의 아버지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데 섬에서 군사복무를 하는 은실이 아버지는 그럴수 없었던것입니다.

은실이는 아버지를 누구보다 존경했습시다. 부대안의 군인문화회관을 개건할 때 회관홀에 희한한 무리등도 구입해서 설치했으며 벽체의 미술작품들도 직접 그렸다고 합니다. 이미 설치된 텔레비존중계탑도 아버지의 손길이 닿은것이며 외진 섬에서도 더 밝은 텔레비존화면을 볼수 있도록 작년부터는 산새들도 날아오르기 저어하는 저 뽕족봉우리에 새 중계소를 세울 결심을 실현하려고 애쓰고있습시다.

그런 아버지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뵈는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지만 원썩들이 바로 코앞에 도사리고 있는 최전연에 위치한 이 섬은 언제 싸움이 터질지 모를 위험한 곳입니다. 아버지는 가물가물 바라보이는 저 물에서도 한참이나 떨어진 이 외진 섬에서 뽕족봉우리를 받드는 바위에 뿌리박은 솔대문처럼 떠날



줄 모르니 은실이의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방목하는 염소들을 몰고오던 어머니가 은실이의 곁에 다가왔습니다.

《은실아, 너 또 아버지를 기다리랬구나. 그런데 손에 편지가 편지가 아니냐?》

은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들고 읽어내려 가던 어머니의 숨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아니! 현희 아버지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었구나!》

머리를 숙이고있던 은실이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 난 아달산할아버지나 만나구 남포이모를 만나구 현희와 즐겁게 놀다오자구 물에 나가려는게 아니예요. 우리도 이젠 물으로 이사를 가자요. 아버진 언제까지 여기서. 흑-》

은실이는 참았던 설음이 한꺼번에 터져올라 흐느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은실이가 진정하기를 기다리며 말없이 어깨를 쓰다듬던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전에 이사가는 문제가 제기된적이 있었다. 평양으로 말이다.》

《평양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은실이는 눈이 둥그래져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군인회관도 개건해야 하고 텔레비존중계탑도 더 세워야 한다며 네 아버지가 승인을 안하셨다.》

은실이는 그만 외마디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가요?》

《아버진 자기의 영예만을 위해서 군복을 입은것이 아니지. ... 이젠 집으로 가자꾸나.》

어머니는 앞서가는 염소무리를 황급히 따랐습니다. 어머니의 뒤모습을 바라보는 은실이의 얼굴에는 견잡기 어려운 표정이 어렸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할수가 없었던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폐를 쓰고 줄라서라도 꼭 물으로 나가자는 확답을 받고싶었습니다. 아버지도 현희 아버지의 기쁜 소식을 안다면 생각이 달라질수도 있을것입니다.

3

그날 밤이었습니다.

...은실이는 아파트의 창문을 열어제꼈습니

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 주체사상탑이 서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껏 울렁이는 가슴을 안고 주체사상탑을 지나 멀리 앞을 바라보니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모셔져있는 김일성광장의 웅장한 자태가 안겨왔습니다.

은실이는 저도 모르게 《야!-》하고 환성을 올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은실이라도 그렇게 뵈고싶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김일성광장의 높은 연단에 오르시는 모습을 가까이에서도 우러러뵈울수 있게 된것이 너무 기뻐 얼른 전화를 들었습니다. 마침 현희가 집에 있었습니다.

《현희동무, 빨리 놀러와. 우리 집은 주체사상탑뒤에 서있는 <단결>아파트 10층 5호야. 응, 얼마나 희한한지 몰라. 빙빙도는것 같은게 비행기를 탄것 같애. 내 기다릴게.》

전화를 받은 현희는 깜짝 놀라는것이었습니다.

하긴 평양시교외에서 사는 현희를 은실이는 평양의 중심에서 부르는것입니다.

문득 부엌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희가 벌써 날아왔나?!)

현희를 마중하려고 잠자리에서 일어나고보니 꿈이었습니다. 얼마나 아쉬운지 온몸의 맥이 다 빠져버린듯 했습니다.

은실은 요즘 평양으로 이사간 꿈을 자주 꿉니다. 꿈을 꾸고나면 마음은 더욱 평양으로 향하고 은실이가 바라는 영광의 순간은 더욱 가까워지는것만 같았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나서던 은실이의 눈길이 반짝 빛났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아버지의 출장용가방이 들려있었던것입니다.

간밤에 아버지가 오신 모양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셨나요?》

《들어서는 길로 부대에 나가셨단다.》

《음, 아버진 이 딸 곱다는거 거짓말이야.》

어머니가 응석을 부리는 은실이의 볼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튕겼습니다.

《왜 보고싶지 않겠니.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는 네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 뽕죽봉중계탑으로 보내라더구나. 내가 준비를 해줄테니 가거라.》

《야! 좋아.》

은실은 박수까지 짹짹 쳤습니다. 꿈이 신통해보이고 일이 착착 맞아떨어지는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꼭 대답을 받아낼테야. 현희의 편지도 가지고가겠어.)

은실은 섬을 떠나 물으로 이사가는 생각에 수업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은실이는 어머니가 꾸려준 배낭을 메고 봉우리에 올랐습니다. 금강산처럼 보이던 뽕족봉의 바위돌상들과 잠관목파위들이 이제는 그의 눈길을 끌지 못했지만 물으로 갈수 있다는 생각에 봉우리를 단숨에 올랐습니다.

《오, 우리 은실이가 왔구나!》

밖에서 피뢰침을 고정하고 안테나를 조절하던 텔레비존중계수아저씨가 은실이를 먼저 보고 반겼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십니까!》

아저씨에게 인사를 하고 은실이는 중계실안을 살폈습니다. 안에서는 설비조립을 끝내고 텔레비존을 중계하기 위한 마무리작업을 하고있었습니다.

은실이는 얼른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중계실안에서 계기를 조절하고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실이는 아저씨들과 함께 긴장한 눈으로 텔레비존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잡음이 가시지더니 텔레비존화면에서는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의 모습이 환하게 비쳐지면서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합창이 장중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성공이다!》

중계수아저씨와 수리공아저씨가 환성을 올렸습니다.

은실이는 얼른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 모셔진 **김일성**대원수님의 영상을 우러르는 아버지의 모습은 자못 숭엄했습니다.

중계설비설치를 다 끝내고 다시한번 간간히 살펴본 다음에야 아버지는 은실이의 어깨에서 배낭을 벗겼습니다.

《어이구, 토끼꿈이구나. 동무들, 이진 우리 은실이가 키운거요.》

《은실아, 고맙다.》

아저씨들이 칭찬하자 인민군대아저씨들을 위해서 토끼를 키운 보람으로 은실이는 무등 기뻐했습니다. 은실이는 아저씨들이 아버지와 함께 맛나게 식사를 하는 동안 봉우리 들레를 빙 돌았습니다.

먼저 식사를 끝낸 아버지가 밖으로 나오자 은실이는 아버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어깨에 매달려 귀에 대고 속삭거렸습니다.

《아버지, 나 부탁 하나 할가요?》

아버지가 은근한 눈길로 은실이를 보았습니다.

《물으로 이사나가자는 부탁 말이지?》

《아버지도 다 아시네. 바로 그거예요. 보시겠어요? 현희한테서 온 편지예요. 물으로 나간지 얼마 안되는데 현희 아버지 별써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지 않았나요.》

은실이는 얼른 품속에서 현희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곁에 앉아 편지를 받아 읽고있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도 걱정으로 환해지는것 같았습니다.

《현희 아버지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소식을 나도 부대에서 들었단다. 회답을 썼니? 어서 편지를 써라. 축하해줘야지.》

《아버지, 그럼 내 부탁은?》

《부탁...》

아버지는 은실에게 얼핏 눈길을 주었다가 군모를 벗더니 반짝이는 모표의 오각별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은실은 안타깝게 재촉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은실이를 이윽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은실아, 이제 저 해가 지면 래일 아침에야 만나게 된다. 그러나 내 마음속엔 언제나 낮만 있단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은실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건 말이다, 아버지가 이 섬에서 18년간이나 적들과 총구를 맞대고있어도 내 마음속엔 지지 않는 태양이 있다는 말이다. 난 우리가 평양에서 멀리 떨어져산다고 한번도 생각한적이 없단다.》

은실이는 자기의 소원이 허사로 되는것 같아 울먹거렸습니다.

《아버지, 난 다른 아버지들이 원수님을 만나뵈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와했는지 몰라요.》

울먹울먹해진 은실이를 한동안 바라보던 아버지가 손에 든 군모를 내보였습니다.

《은실아, 이 모표를 보라. 이 별이 무엇을 상징할까?》

은실이는 노을빛을 받아 빛나는 모표의 오각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군모에 빛나는 이 오각별은 우리 인민군 전사들 한사람한사람이 태양의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들임을 상징한다. 아버지도 그 위성들중의 한개 별인 경애하는 원수님을 옹위하는 태양의 위성이란다.》

《태양의 위성!》

은실은 아버지말을 되받아외었습니다.

《은실아, 아버지도 원수님을 뵈고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그런데 모두 은실이처럼 생각한다면 누가 여기서 태양을 지키고 받들겠니. 아버지 도저히 그렇지 못하다.》

《!...》

은실이는 아버지의 말을 다 이해할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해 야속했던 마음이 뾰족봉에 안개가 걸히듯이 가뭇없이 사라지는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중계실에서 기타를 벗겨들고 나왔습니다.

《은실아, 한곡 타렴.》

《예.》

은실이는 아버지가 늘 부르는 노래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로운 해빛 향도의 해빛
한몸에 받아안고
태어나서 모두 삶의 위치를
그결에 정했어라
태양 태양 우리 태양 따르는 위성 되자
태양 태양 우리 태양 지키는 위성 되자
위대한 장군님 받드는 위성 위성 되자

은실이가 뎨 선창을 아버지와 아저씨들도 따라불렀습니다. 노래는 노을이 붉게 타는 바다가로 멀리 울려갔습니다.

은실이는 노래를 부르면서 아버지가 품고 있는 그 깊은 뜻이 자기의 가슴에도 새겨지는것 같았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고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안고사는 아버지를 더 잘 알게 되어 더 따르고만 싶어졌습니다.

다음날부터 은실이는 아침마다 아버지를 따라 부대에 모셔져있는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에 남먼저 달려나가 인사를 드리는것으로부터 하루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인민군 대아저씨들에게 대접하려고 미나리와 고사리도 뜯었으며 초소위문공연에도 더 많이 참가했습니다.

이런 은실이에게 뜻밖의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학습에서 언제나 최우등생이고 누구보다 좋은 일을 많이 한 은실이가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대표로 뽑힌것입니다.

은실이는 함께 가는 대표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어머니의 바램을 받으며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이날은 은실이가 섬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물으로 나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배를 타고 또 특별빠스를 타고 꼬마대표들이 들게 되는 려관에 도착해서야 은실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체 꼬마대표들을 위해 사랑의 특별빠스와 특별렬차, 특별비행기까지 보내주셨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은실이의 가슴은 한없이 설레이기만 했습니다.

은실이처럼 평양에 처음 오는 꼬마들을 위한 다양하고 즐거운 참관이며 이들을 환영해주는 사람들의 따뜻한 눈길들을 보니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는 우리당의 고마움이 뜨겁게 안겨왔습니다.

만수대언덕우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만경대, 혁명렬사릉참관과 그리고 동물원이며 물놀이장, 유원지들에서의 재미나는 나날들과 국립연극극장, 평양교예극장의 잊지 못할 공연들, 옥류관이며 청류관에서의 맛나는 음식들은 은실이네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행복의 순간, 기쁨의 순간들로 날과 날을 보내던 은실이에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는 영광이 찾아오고있었습니다. 은실이가 련합단체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신 바로 왼쪽결에 자리잡은 주석단대표로 선출된것입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은실이는 심장이 터지는듯 쿵쿵거렸습니다. 꿈속에서처럼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안 그럴것습니까.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섬에서 올라온 이름없는 소녀에 불과한 은실이가 아닙니까.

주석단대표들가운데는 축복이처럼 이름만

들어오든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소년단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철을 모아 강철 공장들에 보내준 소년단원들도 있었고 건설장과 영예군인들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어 널리 소개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뜻깊은 6월 6일 아침,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대기실에서 영광의 시각을 기다리는 은실이의 머리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어떤 영광의 시각이 다가온 것도 모르고 어느 중대의 예술공연을 지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방송차를 타고 강행군하는 대오의 전투사기를 높여주는 구호를 웨치고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시 대회소식을 섬에 알리는 중계소들의 가동정형을 살피고계실지도 모릅니다.

은실이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와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군관의 딸인 저도 곁에 세워 주셨어요.》

이때 갑자기 《경애하는 원수님!》 하고 목메여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난 은실이는 무작정 대기실에 들어서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제일선참 달려가 와락 안겼습니다.

만면에 환하신 미소를 지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안기는 아이들을 차례로 안아주시었습니다. 원수님께서서는 감격의 눈물을 견잡지 못하는 꾀마대표들을 쓰다듬어주시고 나서 담화를 나누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름은 무엇이고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 아버지,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느냐 다정한 음성으로 물으시었습니다.

학생들의 씩씩한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은실이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보내시며 이름은 무엇이며 어느 학교에 다니는가고 물으시었습니다.

은실은 기운차게 대답했습니다.

《음... 섬방어대가 있는 곳이란 말이나? 거긴 전연중의 최전연이지. ...》

원수님께서서는 심중한 표정을 지으시고 먼 곳으로 시선을 보내시었습니다. 그러시다 다시 물으시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느냐?》

(...)

순간 은실이의 얼굴은 빨간 앵두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대대장이나 중대장은 아니래도 작전참모나 정찰참모라면 얼마나 떼뻗하겠습니까.

은실이는 주저주저하며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저희 아버지... 섬방어대... 문화기재를 맡아보는 군관입니다.》

은실이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광에는 봄날같이 따뜻한 미소가 어려왔습니다.

《네가 그곳 문화기재를 맡아보는 군관의 딸이란 말이나?! 난 너의 아버지를 잘 안다. 우리 군인들을 위해 훌륭한 일을 했지. ...》

(아버지원수님께서서 우리 아버지를?!)

쭈뻐하게 서있던 은실은 고개를 번쩍 들고 원수님을 우러렸습니다.

《이번에 섬방어대에서 올라온 보고를 받고 누군가 했더니 은실이 아버지였구만...》

애아버진 외진 섬초소에서도 군인들과 섬사람들이 도시부럽지 않게 량만에 넘친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18년간이나 자기 맡은 초소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군인문화회관을 멋있게 개설했구 평양소식과 조국의 숨결을 더 잘 안고 살게 하자구 험한 산고지에 텔레비존중계탑도 새로 설치하고... 18년간을 변함없이 맡은 혁명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장령별을 단 인민군대정치일군을 보시며 말씀하시었습니다.

원수님을 우러르며 은실이는 마음속으로 웨쳤습니다.

(아버지, 들으시나요! 원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꾀마대표들을 둘러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었습니다.

《우리가 소년단어린이들의 대회를 마음놓고 진행하는것은 은실이 아버지나 너희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기들의 일터를 굳건히 지켜서있기때문이란다.

은실아, 방어대에서 군인문화회관도 번듯하게 개설했는데 공훈국가합창단을 보내여 공연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 꼭 섬에 찾아가마.》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은실이의 두볼로는 감사의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실이는 텔레비죤중계탑밑에서 하시던 아버지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은실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해빛은 이미 자기와 아버지에게도 직접 비쳐지고있었음을 새삼스레 깨달았습니다. 아니, 대회에 참가한 전체 꼬마대표들과 전국의 소년단원들, 온 나라 인민들에게 그늘없이 비쳐들고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사랑의 대회, 행복의 대회에 참가하고 섬으로 돌아온 은실이는 부두에 내리는 순간 두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부두에는 방어대군인들과 인민들이 모두 펼쳐나와 군악까지 울리며 환영하고있었기때문입니다.

환영모임에서 정치위원아저씨가 마이크에 대고 크게 웨쳤습니다.

《우리 섬의 전체 소년단원동무들, 우리 섬의 소년단대표를 자신의 몸가까이 세워주셨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섬 전체 학생들을 평양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불러주시는 은정깊은 사랑을 또다시 안겨주시었습니다.》

《야!》

아이들은 너무 좋아 짱총거리고 군민이 한덩어리가 되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만세!》를 목청껏 불렀습니다.

은실이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감격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두에서 환영모임이 끝나니 이번에는 마을에서 어머니들이 은실이를 축하해줍니다. 환영의 물결속에 떠받들리우던 은실은 마을 어머니들이 돌아가기 바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계시나요?》

《중계탑에 올라가계신다. 어서 가봐라.》

은실이는 나는듯이 봉우리에 올랐습니다. 오르면서 봉우리기슭을 덮다싶이 피어나는 들국화묵음을 준비하는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죤중계수아저씨와 함께 화면에서 반복되어나오는 행사과정을 시청하던 아버지가 봉우리에 올라온 은실이를 향해 급히 마주 나왔습니다.

《은실아!》

《아버지!》

은실이는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은실아, 내 다 보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몹시도 같렸습니다.

아버지는 은실이를 지는 해를 향해 돌려 세웠습니다.

《은실아, 우리에게는 지는 해가 따로 없구나.》

은실이는 또박또박 아버지의 말을 이었습니다.

《땅우에는 낮과 밤이 따로 있고 그늘진 곳과 양지가 따로 있으면서 이 땅을 속속들이 다 비칠수 없지만 우리의 태양은 한점의 그늘도 없이 우리모두의 마음속에 언제나 따사롭게 비쳐주고있어요.》

《그래, 우리 은실이가 용쿠나!》

아버지는 은실이의 머리를 다정히 쓸어주었습니다.

이글거리던 여름날의 태양이 서해의 깊은 물속으로 쏙 들어가 숨어버렸습니다. 수평선에서 기여나온 땅거미가 봉우리우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은실이에게는 전혀 어둡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은실이는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나 군모를 줘요.》

아버지가 벗어주는 군모를 받아든 은실이는 어둠속에서도 빛나는 오각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때없이 닭군 하는 오각별이였습니다.

은실이는 아버지의 모자를 자기의 머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군인선서하듯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도 위성이 되겠어요. 한생 변함없이 태양만을 따르는 위성! 태양만을 지키는 위성!》

은실이는 어둠속에서도 보고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 안겨 밝고밝은 미래로 힘차게 달려가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의 모습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최전연 섬초소를 찾아주신 그날은 아직도 바다바람이 쌀쌀한 날이였습니다.

원수님께서서는 조국의 섬초소를 굳게 지켜가는 초병들을 만나주시려 파도사나운 배길을 헤쳐오신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을 받아안은 섬마을은 감사의 열기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었습니다.

원수님께서 섬초소를 다녀가신 날 은실이는 현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온 나라는 평양과 한집, 한뜨락이라고!